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12월호

통권 제 21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0,11월 교우소식

축하

- ♣ 이종구 교우 - 제3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풍혈반 주칠12각선) 및 전시회, 국립민속박물관(11월5일~24일까지)
- ♣ 출산 - 이다미·조중수교우(이삼형 집사·정영란 권사의 딸,사위) , 득남(아기:조민준)
- ♣ 결혼 - 윤상희양(윤정구 교우·김진집사 장녀) 10월22일(토) aT센터 웨딩컨벤션
- ♣ 출산- 윤병우, 박현명 부부 (윤명렬, 김혜숙 집사의 아들, 며느리)
- ♣ 출산- 최성진·김기연 부부 (김희주 집사·강재덕 권사의 사위,딸) 득녀
- ♣ 결혼 - 오세준군·장미양(2부찬양대 솔리스트) 11월12일(토) 안동교회 본당
-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국무총리상 수상 - 김기연 집사(추모의벽)
- ♣ 결혼 - 김진곤군·한경미양 11월19일(토) 새천년부페 컨벤션웨딩센터

별세

- ♣ 고 이정순 집사 (어린이집 원장 이충희 집사의 모친) - 11월14일 별세, 16일 장례
- ♣ 고 이봉주 성도 (이선옥 권사, 백종관 장로 부친) - 11월20일 별세, 22일 장례

입원

- ♣ 남기정교우 - 신촌세브란스병원 82병동 854호

- ♣ 황정애 권사 - 건대병원 8204호
- ♣ 문애자 권사 - 백병원1109호

감사

- ♣ 추영일 장로·김혜자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 이정섭 장로·오군자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 장미화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 백종관 장로·이선옥 권사 - 점심식사제공.

기타

- ♣ 2012년도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한누리 : 송재욱 박종환 -
한 메 : 배호근 백병기 -
한가람 : 이종서 안일현 김중명
한 빛 : 김희진 민기숙 강춘자
한 샘 : 최서섭 이윤희 오정순
한 길 : 유명옥 김민수 강희선
한사랑 : 유혜옥 동혜선 이미옥
한마음 : 홍동근 조성아 최영란

가을의 안동교회소식

천고마비의 가을, 안동교회는 풍성한 문화공연들, 사랑의 맛잔치와 특별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월9일(주일)과 16일(주일)에는 매년 열리는 작은 음악회와 새생명 축하행사가 있었다. 11월13일(주일)에는 인도의 슬림가 아이들의 합창공연 바나나콘서트가 있었다. 이 공연을 통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다. 또한 11월20일(주일)에는 남성합창단 제5차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안동교회 남성교우들의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사랑의 맛잔치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10월30일(주일) 2부 예배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를 통하여 얻게 된 수익금(W2,103,570)은 전액 고등부 학생 장학금으로 쓰였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새벽을 깨웠다. 대림절 첫째주간에 해당하는 11월28일(월)부터 12월3일(토)까지 본당에서 매일 오전6시에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였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

을지자르갈 전도사

우리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 또한 떠오르는 한 가지는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나요? 멋진 구슬, 반짝 반짝 빛나는 전구들? 그러면 여러분은 사과, 빵, 조, 창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래전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기 위한 연극준비를 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탄절 연극에 에덴동산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유일하게 초록빛을 내는 전나무를 생명나무 대신 둘 때 선지자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에 따라 푸른 나무가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나무를 보며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를 기억했고, 전나무에 사과를 달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사35:1)라는 말씀으로 읽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자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라는 찬양을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처럼 피어나는 장미꽃의 대한 찬양을 들이며,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6:35)라는 말씀을 읽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트리에 ‘과자 빵’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는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초’를 트리에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화려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온 우리에게 전나무, 사과, 장미, 과자 빵, 초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트리를 보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집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이야기가 빠지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체육대회

교사 김정일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 참가한 지, 꼭 10년 만에 갖는 운동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부터 무척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날 하늘은 청명해서 하나님도 저희 운동회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은 단풍으로 물들고 기운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운동회에 적절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희 안동교회 중고등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을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덕성여고 운동장에서 20명의 학생들과 11분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교사들 10명이 청군 홍군으로 나뉘어 판 뒤집기, 피구, 2인 3각 달리기, 릴레이(계주), 그리고 2명씩 짝을 이뤄 포크댄스를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홍군이 청군을 간발의 차로 물리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저희들은 교회 마당으로 이동해 삼겹살 파티를 가졌습니다.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들은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 대하여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사실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점은 저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청소년시절의 좋은 추억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였지만 혹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로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노파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특히 여러 학

부모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아이들의 가슴 한가운데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시상식이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체육대회와는 달리 저희는 시상식 때 승자와 패자에게 줄 선물을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승부욕이 약해지거나 정작 승리하고도 똑같은 상품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려던 것은 단순한 승패의식보다는 패자를 격려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속에서 점차 인간미는 사라지고 살벌한 격투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패자들을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해 많은 사회적 병폐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하는 과정과 패자에게도 노력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해심과 관용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런 경쟁체제 아래에서 생겨나는 상처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교회를 이끌게 될 학생들에게 이번 체육대회가 참된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줄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안동교회 중고등부가 신앙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송대회가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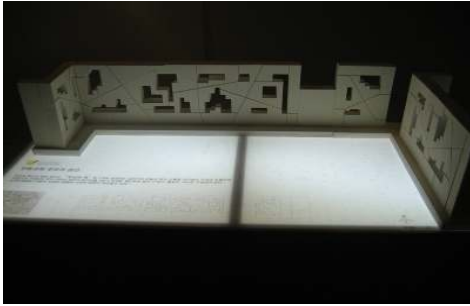
유치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예배 후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외운 성경말씀을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뽐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물론 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말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외우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특히 성경말씀을 암송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송대회가 열리기 약 한 달 전부터 암송할 구절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나눠주어 아이들이 되도록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송구절 선정은 암송대회가 열리는 주가 대립절 첫 번째 주 인데다가 성탄절이 약 한 달 후로 다가온 터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구절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네 구절을 아이들에게 제시하였는데 너무 많은 구절을 아이들이 외우는게 아닌가 싶어 네 구절 중에 세 구절을 외우면 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동안 예배가 끝난 직후에 아이들과 함께 암송대회에서 할 네 구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이 익숙하게 다가오게끔 하였답니다. 드디어 암송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이 암송대회의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아이씩 나와서 암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친구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외우는 건 너무 떨린데.. 앞에서 외우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현이가 용감하게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주어진 암송 구절을 술술 외우는 것이예요. 이현이가 시작을 하니깐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용기 있게 나와서 암송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또박또박 말씀을 외우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처 암송을 다하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용기 있게 친구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대견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면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말씀 외우는 것을 어려워할텐데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서 앵두같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때 묻지 않고 이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부터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자라면서 말씀을 가까이해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추모의 벽(국무총리상)



▶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작은 음악회



▶ 사랑의 맛잔치



▶ 한샘나들이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본교단 총회, 대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관여키로

본교단 총회가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처'와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 등 대사회적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나갈 전망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맞아 해병부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연평도를 방문한 총회 임원들은 지난 15일 해병대 연평교회에서 제96회기 3차 임원회를 열고 대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들과 각 부서 총무 및 산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원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해오던 '안티기독교 대책활동'을 사회봉사부가 계속 맡아 진행하도록 결의한데 이어 교회 내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총회 차원에서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본교단 총회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에서는 1989년 창립돼 전세계 81개국에서 5천명의 스태프와 1천3백여 명의 기아봉사단이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도 효과적인 선교구호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0월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태국 중·북부지역의 홍수 사태에 대해서도 긴급 재해구호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회 사회봉사부로부터 하여금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모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원로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총회 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위원으로 직전 위원장인 정종성장로와 한국장로교북지재단 이사장인 민경설목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제96회 총회에서 공주원로원 매각을 결의한 이후에 교회와 기관으로부터 후원 중단이 이어져 공주원로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교회나 기관이 후원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총회장과 대책위원장 공동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세계선교부장이 청원한 '선교사 안식관 구입건'과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미국 남장로교 기증 부동산 실사 보고서 제출건'에 대해서도 허락하고 조치를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맞아 총회 임원들은 연평도 해병부대 장병을 위로 방문하고 격려했다. 총회 군선교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위로 방문은 부대장과 장병, 해병대연평교회 군선교 현장을 등을 돌아보고 격려한데 이어 포중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안보강연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연평도에 자리한 본교단 소속 교회 연평교회를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관변경은 설립이념 훼손하는 것"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언더우드 일가(一家)가 지난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교단과 송이사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세대 설립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한국명 원두우)의 4대손 피터 언더우드(Peter A. Underwood, 원한석)는 지난 21일 연세대 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후손들은 연세대학교 재단법인이 대학과 병원 설립정신을 온전히 견지해나가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또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터 언더우드는 얼마 전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아버지 리처드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 원득한)와 형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원한광)와 함께 최근의 사태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교환하고 학교 설립자의 집안으로서 지난 21일 입장을 밝힌 것. 피터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된 우리 가족들은 최근 연세대학교의 급작스러운 변화, 특히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연세대학교 법인 정관은 연세대학교가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피터 언더우드의 기자회견 전에는 연세대 신과대 동창회에서 연세대 사유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과대 동창회장 이진목사는 "탈법적 회의로 설립 주체인 교단파송이사를 전격 퇴출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설립 주체의 재산권과 인사권과 관리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교단연합정신을 일순간에 뿌리 뽑으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불순한 작당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과대 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우영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관 제24조를 원상회복시키고 한국교계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 △김한중총장은 건학이념을 수호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4개 교단은 한국교회와 연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교단이사 파송권을 절대 수호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 저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차상 하자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정관 변경안 인가 철회 등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 4명을 선임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4개 협력교단 이사를 기독교계 이사로 통합해 2인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정관 변경 과정에서 방우영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즉석에서 정식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임시총회 취소, "총회에 올인" 의지 반영된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4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날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기총호'가 내부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28일 실행위원회 이후 한기총의 운영이 회원교단들과 최소한의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1일엔 이단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난데없이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인 최상경목사를 조사한다고 나서는 등 교계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논의를 연이어 일삼고 있다. 이와중에 한기총 주변에서는 한기총이 특정인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유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관개정 이후 한기총에 쏟아진 비난에 대해 한기총은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단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씻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단 실체마저 의혹으로 남은 합동복음의 장재형 씨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전혀 없다"며 두둔했다. 이단 문제는 9개 교단만 지적한 것이 아니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 역시, "이단의혹이 있는 인사가 WEA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다. 의혹을 씻고 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9개 교단을 버리고 가겠다는 뜻은 실천하고 있다. 예장 대신을 시작으로 회원권 보유 교단을 확대한다면 결국 선거와 총회 모두 수월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 문제는 한기총의 모든 일들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길자연 대표회장 취임 후 열린 임시총회와 고성 원로지도자 간담회, 실행위원회 등이 차기 대표회장 만드기에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홍제철 목사'를 위한 한기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홍목사는 한기총 업무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법적으로 홍목사는 한기총 '공동회장'의 자격이 없다. 한기총은 정관 개정 전 공동회장의 자격을 '교단장 및 단체장'으로 명시했고, 개정 후에도 '교단장 및 단체장 혹은 역임자'로 제한했다. 홍목사는 '북한옥수수

심기운동본부' 회원단체 대표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단체는 한기총에서 승인된 바 없다. 지난 실행위원회 때 회원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회원 가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이 단체는 한기총의 공식 회원이 아니며, 단체장인 홍목사 역시 공동회장으로의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목사는 길 목사 복귀 후부터 지금까지 공동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임원회에 참석하고 한기총 사무실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단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본 교단 박위근 총회장은 "한기총은 정관 및 규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행적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회원 교단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신총회 정근두 총회장 역시 "작금의 한기총은 위협적인 팩스를 보내 교단을 우습게 보는 행위를 일삼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이며, 본래의 연합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도 없을 것"이라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한기총이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에는 본 교단을 비롯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등 10개 총회가 참여했다.

선교위해 한·호교회가 모였다

호주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한국교회가 복음에 빛진자의 입장에서 호주에 위치한 한인교회와 함께 북한주민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노회 과천교회(주현신목사 시무)는 지난 13일 호주 호주연합교회 소속의 멜본한인교회(고동원목사 시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고 북한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호주 멜본한인교회에서도 과천교회 관계자를 초청해 같은 내용으로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과천교회는 1950년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조원국 황태주목사에 이어 김찬종목사가 1979년에 3대 목사로 부임해 31년을 시무하고 지난 2010년 12월에 은퇴한 후 주현신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과천교회는 세계선교와 북한선교, 국내선교를 통해 복음전도에 사명을 다한다는 목표 아래 믿음의 역사위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한민족교회의 희망으로 성장해 왔다. 멜본한인교회는 1973년에 호주 최초 한인교회로 세워져 호주연합교단에 소속한 교회이다. 특히 멜본한인교회의 초대 목사인 서두화(Alan Stuart)목사는 호주교회 파송으로 한국에서 선교한 경험이 있으며,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두 교회는 자매결연 협약서를 통해 "호주교회의 한국선교 1백22주년과 대한민국과 호주의 국교수립 50주년을 감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 중국 몽골 호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 동역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위해 △양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됨을 나누도록 성

도의 교제를 위해 노력 △한민족 교회의 개혁과 부흥과 선교, 우리 겨레의 평화통일과 복된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연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멜본한인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선교 사업에 양 교회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번 자매결연에 대해 과천교회 주현신목사는 "호주 교회가 국내 선교를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인 부산 경남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한국 교회와 호주 교회가 공동으로 한반도 북쪽의 끝자락에서 공동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교회가 해외 한인교회가 북한선교협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양 교회의 선교협력은 지난해에 과천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주 목사의 가정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 목사의 부친 주경덕목사(안양 대영교회 원로목사)가 1950년대에 단신으로 월남해 부산에서 정착하면서 호주선교사인 매헤란(Helen Mackenzie) 매헤영(Catherine Mackenzie) 자매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것. 주경덕목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교수 서두화선교사가 멜본한인교회 초대목사가 됐고, 주현신목사가 2003년에 이 교회 제7대 목사로 부임해 7년간 시무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과천교회 당회서기 황호정장로가 멜본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멜본한인교회에서는 교회의회 서기 강창규 장로가 과천교회 예배에 참석해 협력서를 교환했다.

생명목회실천협

14~15일 '목회자대회' 개최

생명목회실천협의회(상임대표:손인웅, 대표회장:박기철)가 목회자의 잘못을 통회 자복하는 '전국 목회자대회'를 14~15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목회자의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백 50여 명의 참석자 일동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교회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목회자들의 죄요, 잘못임을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깊이 통회하며 회개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한기총의 파행 운영에 대해, "근본 문제는 목회자의 권력욕에 있음을 자인한다"며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정치이념이나 지역과 문화, 편협한 신학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성명에는 자성과 함께 총회선거 개선과 여성지도력 향상에 대한 요구도 들어있다. 참석자들은 "총회선거는 성경말씀에 기초해 공정하고 깨끗한 봉사직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지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채택에 앞서서는 목회 심포지엄과 순달 익목사(총회부총회장·서문교회), 임성빈교수(장신대)의 특강이 있었다. 심포지엄은 구미등대교회(강재식목사), 주님의교회(박원호목사), 일산신광교회(최영업목사), 광주동광교회(김민식목사), 부산산성교회(허원구목사) 등의 목회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대회를 마치기 전 상임대표 손인웅목사(덕수교회)는 '생명목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제안으로,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장 박기철목사(분당제일교회)는 이번 대회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들이 총회 발전과 목회 활성화를 위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며 "문제제기나 위기의식 공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도 만들어내는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오해를 해명하다

WCC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WCC가 세계 단일교회 형성을 지향한다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차 총회에 보고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참가하여 왔으니 계속 참가하기로 하되,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WCC가 세계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오해였고 지금도 오해다. 1948년 암스텔담에서 창설된 WCC는 협의회(The Council)의 성격, 협의회와 회원교회와의 관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에 대해 전부 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 넘겼다. 당시 토론토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들을 논의하고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The Church, the churches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란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토론토 성명서'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이후 WCC의 성격과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 문서는 'WCC가 아닌 것'과 'WCC의 기초가 되는 강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WCC가 아닌 것'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1. WCC는 단일교회(Super Church)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2. WCC의 목적은 교회 간의 연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 간의 연합은 (연합을 원하는) 교회의 주도로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뿐 (WCC가 하는 일)은 교회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촉진하는 일이다.
3. WCC는 특정한 교회 개념에 기초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WCC는 교회론적 문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4. WCC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그 회원교회가 자기 교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WCC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일치의 본질에 관한 어떤 특정한 교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명서는 'WCC가 아닌 것'이란 첫 번째 항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WCC는 단일교회도 아니고 세계교회도 아니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도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WCC가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순전히 오해였다. 토론토 성명서에 따르면 WCC가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오해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다. 토론토성명서는 이런 오해에 대한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해가 일어나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다. WCC는 교회적 구조(ecclesial structure)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교회적 치리를 행하지 않는다. WCC가 교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간의 연합을 협상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11년 12월호 · 동권 제 218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1년 12월 13일